

삼성, 평택에 태양전지·제약 “둥지”

첨단 신수종사업 산업단지 조성 ... 신규사업 매출목표 2조4000억원

삼성전자가 평택에 첨단업종 산업단지를 조성해 태양전지와 바이오제약 등의 신수종사업을 본격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삼성고덕산업단지로 명명하고 태양전지와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의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를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는 2011년 3월 삼성전자와 공식적인 용지 분양계약을 체결기로 했다. 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파주 LG디스플레이 생산라인 면적의 2배가 넘는 규모이다.

삼성전자는 고덕산업단지를 수원의 디지털시티, 기흥·화성·온양의 나노시티, 천안·탕정의 디스플레이시티와 함께 핵심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평택시는 2011년 6월 고덕산업단지 착공에 들어가 2015년 말 준공할 예정이며, 부지 조성에만 2조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그룹은 2020년 글로벌 톱10 기업에 진입하고, 태양전지 등 신수종사업만으로 50조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며 “고덕산업단지가 삼성전자의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와 삼성전자는 12월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에서 김문수 지사와 최지성 부회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원유철·정장선 국회의원,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선기 평택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23>